

한 학기  
한 권 읽기  
추천 도서  
5~6학년



## 백정의 아들, 염

프린돌어린이

예영 글 | 오승민 그림 | 196쪽 | 12,000원

주제어  
백정, 추리

신분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신문물이 들어오던 조선 후기에 태어난 백정의 아들 '염'. 오늘날의 흠수저보다 더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염이는 소를 잡는 백정으로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간다. 하필 그날 염이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잡혀가는데...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스스로 희망과 용기를 찾아내는 염이의 불꽃같은 이야기!



## 표지 탐색하기

<백정의 아들, 염>을 읽기 전에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백정의 아들, 염’에서 ‘백정’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

2) 앞표지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앞표지 그림의 인물은 모습으로 보아 성격이 어떨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

4) 책 뒷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이 책에 나올 이야기를 짐작해 봅시다.

소 잡는 게 왜 천하고 더러워?

사람 손으로 짐승을 죽이는데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뭐냐?

신분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신문물이 들어오던 조선 후기에

가장 천한 신분인 백정으로 태어난 아이, 염.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① 윗글에서 ‘염이’가 의문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요?

⇒

②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쓰세요.

⇒

③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로 펼쳐질 것 같은가요?

⇒



##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백정의 아들, 염>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밀도살은 나라에서 법으로 금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밀도살을 한 백정은 백정들 사이에서 백정 대접도 못 받을 만큼 **금기시하는** 일이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 염이는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의아스러웠다**.
- 순간, 염이의 낯빛이 **파리해졌다**.
- “이조식 대감의 집이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사진을 찍게 해 달라 청하며 찾아가면 되겠구나!”
-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살아왔고 자식에게까지 노비 팔자를 **대물림해** 줘야 했으니 그 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다.

(나) · 그래서 ㉠  기회를 옛보다 아버지가 도축장에 들어간 틈을 타서 이때다 하고 마라천으로 달려왔다. / · “미끼를 덤석 물 물고기는 ㉡  달구겠지요.”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금기시하다 : (     )
- 의아스럽다 : (     )
- 파리하다 : (     )
- 자자하다 : (     )
- 대물림하다 : (     )

- ① 의심스럽고 이상한 데가 있다.    ②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떠들썩하다.
- ③ 몸이 마르고 낯빛이나 살색이 핏기가 전혀 없다.
- ④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금기로 여기다.
- ⑤ 사물이나 가업을 후대의 자손에게 남겨 주어 자손이 그것을 이어 나간다.

2) (나)의 빈칸 ㉠, ㉡에 들어갈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 ㉠ :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봄. 그런 모양.
- ㉡ :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거나 거의 틀림없음.



# 백정의 아들, 염

예영 글 | 오승민 그림

프린들어린이

##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백정의 아들, 염>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① “어이구, 이놈이 어디서 함부로 (                    )을 놀려. 얼른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란 말이다.”
- ② 그는 그 돈으로 (                    )을 사서 별감 직책을 얻은 소위 가짜 양반이기도 했다.
- ③ “이따 (                    )에 현청 뒷문으로 찾아와라.”
- ④ 의자에 앉아 있으나 두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심한 (                    )을 당했는지 여기저기에 매 맞은 자국이 보였다.
- ⑤ “더구나 네 아버지는 사람을 죽인 현장에서 잡혀 확실한 (                    )가 있다 하니 난들 뽀족한 수가 있겠느냐?”

(나) “흐흐, (                    )라도 양반 꼴을 유지하고 싶다 이건가?”

1) 문맥과 낱말 뜻을 고려할 때,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증좌 : 참고가 될 만한 증거.
- 입정 :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기 위하여 놀리는 입.
- 해시 : 십이시(十二時)의 열두째 시. 밤 아홉 시부터 열한 시까지이다.
- 고신 : 숨기고 있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 공명첩 : 성명을 적지 않은 백지 임명장. 국가의 재정이 궁핍할 때 관원이 돈이나 곡식을 바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어 명목상의 관직을 주었다.

2) 제시된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에 들어갈 속담을 알맞게 써넣으세요.

⇒ 걸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백정의 아들 / 할아버지의 장례식

다음 <백정의 아들, 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뒤돌아보니 염이 또래의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머리를 하나로 땀아 내려 단정하게 묶었고, 색깔 고운 옷을 입고 있었다. 천천골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모습이였다. / 천천골의 아이들은 사내아이나 계집아이나 할 것 없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녔다. 염이 역시 말총같이 뽀뽀한 머리를 어깨까지 풀어 헤쳤다. 간혹 계집아이의 경우에는 머리를 땀아 늘어뜨리기도 했지만, 보통은 가느다란 쇠가죽으로 그냥 질끈 묶고 다녔다. 더구나 색깔 있는 옷을 입는 이는 갓난아이부터 꼬부랑 노인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 아버지는 염이의 어떤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안 해 주니 대신 할 수밖에 없었다. / “아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오히려 백정이 사람 흉내 낸다고 꼴값 떤대요. 백정이면 백정답게 살래요. 어차피 백정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말든 칼을 잡으면 왜 안 되냐고요!” / 염이의 목소리가 한창 높아지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문을 열었다.

“사람이니까.” / 염이가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백정이라고 사람 노릇도 안 하고 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

1) (가)에서 ‘번촌 아이들’과 ‘염이’가 살고 있는 ‘천천골 아이들’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세요.

	번촌 아이들	천천골 아이들
머리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녔음.
옷	색깔 고운 옷을 입고 있었음.	

2) (나)에 나타난 ‘염이’와 ‘아버지’의 대화를 바탕으로 빈칸을 채워 보세요.

**염이** : 사람 흉내 내지 말고, 백정이면 백정답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는 칼을 잡아야 한다고 말함.

↔

**아버지** :



## 영혼을 빼앗아 가는 사진 / 김득출 살인 사건

다음 <백정의 아들, 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역시 천천골 최고 칼잡이 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먼.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이걸 보네.” / 칠성이 아버지도 기특하다는 눈길로 바라봤다. / “염이는 분명 쇠길이가 자네처럼 타고난 백정이 될 게야.”

타고난 백정! / 그 말에 염이의 머리카락이 성난 고슴도치 가시처럼 하늘로 뽀뽀했다. 팔다리에 닭살이 다닥다닥 돌아났다.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말이었다. 소의 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보다, 가죽이 벗겨지는 것보다, 뼈에서 고기가 발라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말이었다.

(나) “내 얘기는 나중에 할게. 그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설마 아버지가 김득출을 죽인 건 아니지?”

곧바로 두 녀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눈물부터 똑똑 흘리는 개똥이 대신 칠성이가 ㉠ 지난 새벽에 일어난 일을 들려줬다. 염이 아버지가 번춘의 버드나무 숲에서 김득출을 칼로 베어 죽이고 도망치려다가 마침 순찰을 도는 현청 나졸들에게 잡혔다는 것이다.

“아침 댕바람부터 현청 형방이 나와서 너희 아버지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고 갔어. 하필 네가 그 시간에 없었던 게 수상한가 보더라.”

1) (가)에서 ‘염이’가 ‘타고난 백정’을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써 보세요.

⇒

2) (나)에서 ㉠이 가리키는 내용과 ‘형방’이 수상하게 여기는 것을 각각 찾아 쓰세요.

㉠이 가리키는 내용	
‘형방’이 수상하게 여기는 것	



# 백정의 아들, 염

예영 글 | 오승민 그림

프린들어린이

##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 / 재판 결과

다음 <백정의 아들, 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사람들은 아버지가 김득출에게 맺힌 원한이 많아서 죽였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김득출한테 원한이 많다고? 난 그 사람한테 아무 원한도 없다.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자에게 가질 원한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 그 자를 죽일 이유도 없지.”

(나)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짓으로라도 자백을 해야 한대요. 그래야 목숨을 건질 수 있대요.” / “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러다 정말 죽으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 염이는 화가 나서 소리 질렀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 목에 형틀을 찬 아버지가 몸을 움직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거짓으로 자백하면 너는 정말 살인자의 아들이 돼. 널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것도 서러워 가슴을 치는데 살인자의 아들로까지 만들 순 없다. 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겐 못 하지.” / 아버지는 굳게 다짐하듯 입술을 짹 다물었다.

1) (가)~(나)에 나타난 ‘사람들’의 말에 대한 ‘염이의 아버지’의 생각을 써 보세요.

	염이가 전달한 사람들의 말	염이의 아버지
(가)	아버지가 김득출에게 맺힌 원한이 많아서 죽였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음.	
(나)	아버지가 거짓으로라도 자백을 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함.	

2) 다음은 (가)에 이어서 나오는 ‘염이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아버는 소 잡는 ㉠□□이기 전에 ㉡□□이다. ㉢□□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으니 염려 마라.”



## 반월장터 패물점 / 두 개의 장신구

다음 <백정의 아들, 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한 푼 줍쇼!” / 눈치 하면 빠질 수 없는 개똥이는 염이보다 훨씬 거지처럼 패물점 주인 앞에 엎드렸다. / “한 푼 줍쇼! 몇 날 며칠 굶은 거지 한 푼만 적선하십쇼!”

“이것들 뭐야? 당장 안 나가?” / 패물점 주인이 발길질을 하려는데 개똥이가 다리를 잡고 늘어졌다. / “아이고, 불쌍한 놈 천한 놈 한 번만 도와주십쇼.”

“아니 이놈이 어딜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 틈을 노려 염이가 잼싸게 탁자를 훑어봤다. 탁자 위에는 달구가 놓고 간 물건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염이는 그 물건의 모양을 빠른 속도로 눈에 담고 외웠다. 그리고 곧바로 패물점 주인에게 걸어 차여 문 밖으로 쫓겨났다.

(나) 염이와 아이들은 김득출이 죽은 날, 봉삼이가 버드나무 숲에서 나오는 ‘입이 없고 점이 있는 사람’을 보았다는 이야기부터 현감에게 봉삼이를 데리고 갔다가 혼쫓만 나고, 오목길에서 입이 없고 점이 있는 달구를 발견하여 그 뒤를 쫓은 결과 수상한 물건을 거래하는 광경을 보았으며, 달구는 물건을 팔고 받은 돈으로 비단을 샀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류계현 나리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너희 셋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말이냐?”

1) (가)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물음입니다. 알맞은 대답을 써 보세요.

① ‘염이’와 ‘개똥이’가 패물점에 들어간 방법은?	염이와 개똥이는
② ‘염이’가 물건의 모양을 눈에 담고 외운 이유는?	염이는

2) (나)에서 ‘염이’와 ‘아이들’의 설명을 들은 ‘류계현 나리’의 반응이 어땠는지 쓰세요.

⇒





## 사진 속에 담긴 진실 / 미끼를 물었으니 확 당겨야지

다음 <백정의 아들, 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염아, 우리가 알아낸 것은 아직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 정황상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소송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그 칼이 정말 김득출을 벤 것인지, 달구가 김득출의 장신구를 훔친 것이 사실인지 의심이 가는 모든 것을 우리 쪽에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 더욱이 이조식 대감은 이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양반이라 관아에서도 함부로 오라 가라 못할 게다. 그러기에 더더욱 눈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필요해.”

(나) 류계현 나리가 달구에게 물었다. / “네가 사건이 일어난 날 살해 현장에서 나온 것을 본 증인이 있는데도 그 장신구들은 우연히 주웠다 말하겠느냐? 네가 김득출을 해하고 장신구를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거라!” / 달구는 입을 가린 손수건을 풀지도 못한 채 말했다. / “저, 저는 억울합니다. 어찌 모지리의 말을 믿고 저를 살인자로 몰아가십니까? 저는 절대 김득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왼손잡이도 아니고 왜검을 다룰 줄도 모릅니다.” / 달구의 애절한 호소에 염이가 속으로 외쳤다.

‘이거였어! 미끼를 던지면 문다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

1)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나)에서 파악하여 써 보세요.

(가)에서	
(나)에서	

2) 뒷글에서 ‘류계현 나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달구’를 꺾어내기 위해 심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계현 나리’의 행동과 성격에 대해 평가해 보세요.

⇒



# 백정의 아들, 염

예영 글 | 오승민 그림

프린들어린이

## 그깃 신분이 뭐라고 / 불꽃, 염

다음 <백정의 아들, 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결국 이 모두가 신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조식은 가짜 양반 김득출의 조롱을 참지 못해 칼을 휘둘렀고, 김득출은 진짜 양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유서 깊은 종택을 탐내다가 화를 당했고, 달구는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위험한 일에 끼어들었다. 높은 낮은 울가미처럼 목을 죄어 벗어던질 수 없는 신분 때문이었다.



(나) 염이는 새로이 얻은 자신의 이름을 읊조려 보았다. / “불꽃 염”

만약 정말 천민이 양반, 상민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온다면 그건 류계현 나리 같은 분이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 염이는 멀어지는 류계현 나리의 뒷모습을 향해 절을 올렸다. / “나리를 두고두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부축했다. / “아버지, 천천골에 돌아가면 도축 일을 배우겠어요.” / 아버지가 의아스러운 눈길로 바라봤다. / “…….”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다면 소를 잡든 붓을 쥐든 무슨 상관하겠어요.”

1) 뒷글에서 ‘염이’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깨달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

2) 뒷글에서는 ‘이 모두가 신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양반, 상민, 천민으로 구분하여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유롭게 써 보세요.

⇒



##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예시답안) 1) 소나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 머리를 어깨까지 풀어헤친 남자아이가 부릅뜬 두 눈과 앙다문 입술을 하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3) 고집이 세고 용감할 것 같다. 4) ① 소 잡는 게 왜 천하고 더러운 일인지. ② 신분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신문물이 들어오던 조선 후기 ③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염이가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2쪽	1) 금기시하다 : ④, 의아스럽다 : ①, 파리하다 : ③, 자자하다 : ②, 대물림하다 ⑤ 2) ㉠ : 호시탐탐, ㉡ : 십중팔구
3쪽	1) ① 입정, ② 공명첩, ③ 해시, ④ 고신, ⑤ 증좌 2) 빛 좋은 개살구
4쪽	1) •번촌 아이들 - 머리 : 머리를 하나로 땀아 내려 단정하게 묶었음. /•천천골 아이들 - 옷 : 색깔 있는 옷을 입는 이는 없었음. 2) 아버지 : 백정이라고 사람 노릇도 안 하고 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말하며 칼을 잡지 않음.
5쪽	1) 평생 천대받는 백정으로 살면서 도축장에서 소 잡는 일을 하는 것을 타고났다고 해서 2) •㉠이 가리키는 내용 : 염이 아버지가 번촌의 버드나무 숲에서 김득출을 칼로 베어죽이고 도망치려다가 마침 순찰을 도는 현청 나졸들에게 잡혔다는 것. / •‘형방’이 수상하게 여기는 것 : 하필 염이가 김득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에 없었던 것.
6쪽	1) (가) : 어리석고 무식한 김득출에게 가질 원한이 없어서 죽일 이유도 없음. 1) (나) : 거짓으로 자백하면 염이가 살인자의 아들이 되니, 그렇게 할 수 없음. 2) ㉠ : 백정, ㉡ : 사람
7쪽	1) ① : 염이와 개똥이는 거지처럼 위장하고, 패물점 주인에게 한 푼만 적선해 달라며 패물점에 들어갔다. ② : 염이는 달구가 패물점에 놓고 간 두 개의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2) 염이와 아이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8쪽	1) (가) : 의심이 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 (나) :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심문하여 죄를 인정하게 해야 한다. 2) (예시답안) 류계현 나리는 소송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미끼를 던지는 방법으로 용의자를 효과적으로 심문하며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류계현 나리의 모습을 보니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신중한 것 같다.
9쪽	1)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시답안) 두 양반이 진짜와 가짜라며 싸우다가 살인이 났고, 달구는 노비 신분을 벗어나려고 범인의 살인죄를 숨겼다. 사람을 신분으로 구분하여 차별하는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